

나무, 이 나무는 머리 부분이 아주 아름다운 초록 빛깔로 둥글게 자라고, 또 아노나나무, 이 나무는 열매에서 오랜 지꽃 향기가 나는 달콤한 진액이 가득한데, 이런 나무들을 이미 웬만큼 잘 자란 것으로 골라 이 분지를 둘러싼 암벽 주위에 심어줬어. 풀은 그곳에 다른 나무들의 씨도 뿌려두었는데, 심고 나서 이태째 되는 해부터는 꽃을 피우고 열매도 맺혔으니, 길쭉하고 하얀 꽃송이가 마치 상들리에의 크리스털처럼 사방으로 드리우던 아가티스라든가, 옅은 보랏빛 회색 꽃송이가 허공으로 바르게 서있는 페르시아라 일락이 있었고, 또 파파야나무도 있었는데, 이 나무는 가지도 없는 줄기에 초록색 멜론이 비죽비죽 튀어나와 기둥 형태로 솟아 있고, 무화과나무 잎과 비슷하게 생긴 커다란 잎이 그 기둥머리에 얹혀 있는 모양새였지.

거기에다가 풀은 바담아몬드나무 씨앗이며, 망고나무, 아보카도나무, 구아바나무, 잭푸르트나무, 로즈애플나무 등의 종자도 심었다네. 그 나무들 대부분은 벌써 저들의 어린 주인에게 그들과 과일을 제공해주었지. 풀의 바지린한 손은 이 분지에서 가장 척박한 곳까지 풍요를 퍼뜨렸다네. 다양한 종류의 알로에며, 붉은색 줄무늬가 가늘게 난 노란 꽃을 한가득 피우는 라켓신인장이며, 가시투성이의 기둥신인장이며 하는 것들이 거무스름한 바윗등에서 자라나, 파란색 또는 진홍색 꽃을 흐드러지게 피우면서 산비탈을 따라 여기저기 늘어져 있는 리아나덩굴까지 닿으려는 듯 보였지.